

연변조선족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과의 관계

조결자¹ · 박순복² · 이명희³

¹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³신성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Relationships of Self-esteem,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in Jilin Chinese-Korean Nursing Students

Cho, Kyoul-Ja¹ · Park, Soon-Bok² · Lee, Myung-Hee³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anbian, China; ³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University, Dangjin, Korea

Purpose: To survey and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self-esteem,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in Chinese-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ovide supplemental data useful in counseling of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ith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103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in one university in Jilin, China.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Duncan'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Mean scores were 3.40 for self-esteem, 2.32 for family function, and 2.93 for self-efficacy. The score for self-esteem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gender, body mass index (BMI), family number, education level of mother, and course of study. The mean score for family function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nursing satisfaction. The mean score for self-efficacy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BMI and nursing satisfaction. Positive correlations were evident betwee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Conclusions:** To promot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s to support family function is prudent.

Key Words: Nursing students, Self-esteem, Self-efficacy, Famil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획득한 습관, 가치, 신념을 가지고 20대를 시작하는 성인초기로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시기인 반면 신체적·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성인으로 대우받고 긍지를 느끼면서 자기의 모든 생활에서 자기 능력과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적 존재로서 자신을 의식한다(Yoo & Kim, 2005). 반면에 부모와 밀착되어 있던 시

기에서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대학생들은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에 당황하며 때로는 부적응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외부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주는 주요한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긍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외부상황에 대한 심리적 부적응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Go & Kang, 2000). 지금까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적용을 예측해 주는 내적 변인으로 보았으나 Sherer 등(1982)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

주요어 : 간호대학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가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Myung-Hee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University, 49 Deokma-ri, Jeongmi-myeon, Dangjin-gun, Chungcheongnam-do 343-861, Korea
Tel: 82-41-3501-346 Fax: 82-41-3501-345 E-mail: mhlee44@shinsung.ac.kr

투고일 : 2008년 10월 4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24일

능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 즉, 자신의 속성을 얼마나 가치있게 여기며 자신의 행동이 개인의 가치 기준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한 반면, 자아효능감은 자기 능력의 판단 또는 기대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Park (2003)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 형성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변화되지만 가정에서의 지지적이고 반응적인 환경은 건강한 자아존중감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Cho et al., 2005). 즉 가족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기능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전공학문과 직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미래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것이며 자기효능감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가정 내에서부터 일찍이 형성되므로 가족의 기능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정환경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의 문화와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한다(Park, 1987).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의 수준은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Lee, 1995).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경우 정신건강(Oh, 1985)과 건전한 건강행위(Go, 1992), 가족 건강성(Bae & Kim, 2007)에 영향을 미치며, 고등학생의 경우 가족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고(An, 1988),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았으며(Lee, 2002), 간호대학생은 가족의 적응력과 결속력이 높을수록 원만한 성격을 이룬다(Kang, 1992)고 하였다.

Shin, Lee와 Lee (1994)는 중국의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국인의 가족기능 비교결과 연변조선족의 가족기능이 더 기능적이고, 가족응집력이 더 높으며 대처전략정도가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성장배경에 따라 형성되는 가치관은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예상된다.

중국의 조선족 거주지역 가운데 가장 밀집된 곳은 중국 내에서도 선진 문화를 지닌 동북 지방에 위치한 연변으로 이곳에는 조선족의 4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연변은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족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Lee, 1988).

중국 연변의 조선족 고등학생과 한국 고등학생들 간의 가족체제 유형에 대한 비교연구는 두 집단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중국 연변 조선족 고등학생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으며, 중국 연변 조선족 고등학생 가족의 위기 대응 방식은 유의하게 더 높았다(Shin et al., 1994).

최근의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은 급속한 가족구조의 변화, 급변하는 사회문화와 가치관 및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감 확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그리고 가족기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연변 조선족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조선족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의 정도를 조사한다.

둘째, 대상자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국 연변에 소재하고 있는 Y대 조선족 간호대학생을 편의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7년 7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였고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 및 기재 요령과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이었고, 설문지는 110부를 배포하여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7부를 제외한 103부(94%)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 (1986)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의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확실히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다' 2점, '잘 모르겠음'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확실히 그렇다' 5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3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86이었다.

2) 가족기능

가족기능 측정도구는 Smilkstein (1984)의 가족기능지수(family APGAR score)를 Yoon과 Kwok (1985)이 변안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적응(adaptation), 협력(partnership), 성장(growth), 애정(affection), 응화(resolve)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측정은 Likert식 3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 3점, '때때로 그렇다' 2점, '아니다' 1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72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0이었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할 때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가에 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하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능력 인지를 말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 등(1982)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에 입각하여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SES)를 Hong (1995)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구의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확실히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다' 2점, '잘 모르겠음'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확실히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86이었다.

Table 1.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정도 (N=103)

변수	Mean	SD	Min	Max
자아존중감	3.40	.31	1	5
가족기능	2.32	.49	1	3
자기효능감	2.93	.29	1	5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은 t-test, ANOVA와 사후검정을 위해 Duncan's test를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세였으며, 성별은 여자 76.7%, 남자 23.3%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많았다. 학년은 1학년 19.4%, 2학년 20.4%, 3학년 21.4%, 4학년 16.5%, 5학년 22.3%이고, body mass index (BMI)는 평균 20.42 kg/m², 가족 수는 평균 3.78명이었고, 종교는 있다 65%, 없다 35%이었다. 아버지 교육 수준은 고졸 43.7%, 전문대졸 이상 21.4%, 중졸 18.4%, 무학 10.7%, 초졸 5.8%의 순이었고, 아버지 직업은 무직 27.2%, 사무관리직 24.3%, 생산직 18.4%, 자영업 16.5%, 전문직 13.6%의 순이었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졸 57.3%, 중졸 15.4%, 전문대졸 이상 11.7%, 초졸과 무학이 각각 7.8%의 순이었고, 어머니 직업은 무직 29.1%, 자영업 26.2%, 사무관리직 17.5%, 생산직 16.5%, 전문직 10.7%의 순이었다. 부모가 동거하는 경우는 87.4%, 이혼 8.7%이었고, 현재 거주상태는 기숙사 49%, 어머니 17.4%, 아버지 15.5%의 순이었다. 입학동기는 점수 때문에 34.0%, 간 호학에 흥미가 있어서와 부모님의 권유가 각각 33.0%이었다. 간 호학 만족도는 만족한다 36.0%, 보통이다 32.0%, 그저 그렇다 19.4%의 순이었고, 학습성적은 중위권 66.0%, 상위권 17.5%, 하위권 16.5%의 순이었고, 경제상태는 보통 86.4%, 어려운 편 12.6%, 부유한 편 1.0%의 순이었다(Table 3).

Table 2.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N=103)

변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058		
자기효능감	.383**	-.024	

**p<0.01.

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 (N=103)

특성	구분	N (%)	자아존중감			Dun-can	가족기능			Dun-can	자아효능감			Dun-can
			M±SD	F/t	p		M±SD	F/t	p		M±SD	F/t	p	
연령(세)	≤19	9 (8.7)	3.33±.28	.61	.543		2.55±.27	1.16	.317		2.84±.30	.47	.625	
	20~24	92 (89.3)	3.40±.31				2.29±.50				2.94±.29			
	≥25	2 (1.9)	3.60±.70				2.40±.28				2.95±.43			
	M±SD	22.08±1.61												
성별	남	24 (23.3)	3.52±.29	2.29	.024*		2.45±.35	.09	.754		3.02±.33	3.20	.076	
	여	79 (76.7)	3.36±.31				2.31±.50				2.90±.28			
학년	1학년	20 (19.4)	3.28±.28	1.28	.282		2.44±.31	1.50	.207		2.88±.30	2.45	.051	
	2학년	21 (20.4)	3.46±.36				2.24±.50				3.03±.26			
	3학년	22 (21.4)	3.47±.36				2.25±.49				3.00±.28			
	4학년	17 (16.5)	3.41±.18				2.16±.57				2.95±.17			
	5학년	23 (22.3)	3.37±.30				2.46±.49				2.79±.35			
BMI (kg/m ²)	≤18.5	26 (25.2)	3.31±.31	4.27	.007*	a	2.42±.45	1.69	.174		2.93±.26	7.35	.000*	b
	18.6~22.9	61 (59.2)	3.38±.29			b	2.29±.49				2.85±.25			a
	23~24.9	11 (10.7)	3.69±.30			c	2.10±.44				3.19±.22			b
	≥25	5 (4.9)	3.44±.29			b	2.60±.56				3.26±.57			b
	M±SD	20.42±3.25												
가족 수 (명)	≤3	39 (37.9)	3.32±.28	4.18	.043*		2.32±.49	.00	.990		2.93±.28	.00	.958	
	≥4	64 (63.1)	3.45±.32				2.32±.48				2.93±.30			
종교	유	67 (65.0)	3.43±.30	1.93	.167		2.30±.51	-.50	.616		2.89±.27	3.42	.067	
	무	36 (35.0)	3.34±.32				2.35±.44				3.00±.32			
아버지 교육수준	무학	11 (10.7)	3.33±.21	.42	.788		2.29±.33	1.73	.149		2.94±.29	.09	.983	
	초졸	6 (5.8)	3.50±.27				2.16±.69				2.89±.29			
	중졸	19 (18.4)	3.35±.47				20.9±.63				2.96±.33			
	고졸	45 (43.7)	3.42±.26				2.41±.44				2.93±.31			
	≥전문대졸	22 (21.4)	3.41±.29				2.39±.39				2.91±.26			
아버지 직업	무직	28 (27.2)	3.40±.26	.52	.721		2.22±.64	.85	.500		3.02±.31	1.51	.203	
	사무관리직	25 (24.3)	3.44±.34				2.35±.42				2.96±.29			
	생산직	19 (18.4)	3.34±.40				2.47±.44				2.82±.27			
	자영업	17 (16.5)	3.35±.24				2.25±.47				2.86±.32			
	전문직	14 (13.6)	3.47±.29				2.35±.25				2.91±.23			
어머니 교육수준	무학	8 (7.8)	3.12±.19	3.20	.016*	b	2.00±.61	3.20	.016*	b	2.88±.34	1.02	.398	
	초졸	8 (7.8)	3.35±.23			b	2.30±.53			b	3.12±.28			
	중졸	16 (15.4)	3.29±.46			b	2.43±.32			b	2.92±.36			
	고졸	59 (57.3)	3.47±.27			a	2.29±.51			b	2.92±.27			
	≥전문대졸	12 (11.7)	3.45±.25			a	2.55±.29			a	2.86±.26			
어머니 직업	무직	30 (29.1)	3.30±.33	1.32	.267		2.30±.60	.22	.926		2.98±.31	1.14	.341	
	사무관리직	18 (17.5)	3.43±.30				2.37±.34				2.84±.29			
	생산직	17 (16.5)	3.14±.28				2.23±.59				2.84±.26			
	자영업	27 (26.2)	3.44±.24				2.34±.41				2.97±.28			
	전문직	11 (10.7)	3.50±.43				2.36±.36				2.98±.31			
부모동거여부	동거	90 (87.4)	3.40±.32	.39	.673		3.40±.32				2.92±.30	.37	.687	
	이혼	9 (8.7)	3.46±.27				3.46±.27				3.00±.26			
	아버지 사망	4 (3.9)	3.30±.18				3.30±.18				2.98±.33			
경제상태	부유한 편	1 (1.0)	3.10±.00	.48	.616		3.00±.00	1.39	.254		2.60±.00	1.09	.339	
	보통	89 (86.4)	3.40±.32				2.33±.47				2.94±.30			
	어려운 편	13 (12.6)	3.42±.23				2.20±.60				2.85±.18			
입학동기	간호학에 흥미가 있어서	34 (33.0)	3.34±.22	2.23	.112		2.45±.39	1.85	.162		2.84±.26	2.85	.062	
	점수 때문에	35 (34.0)	3.36±.37				2.24±.52				3.01±.29			
	부모님의 권유로	33 (33.0)	3.49±.30				2.27±.52				2.92±.31			
간호학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11 (10.7)	3.33±.23	.66	.615		2.50±.36	3.11	.018*	a	3.03±.30	3.92	.005*	a

(Continued to the next page)

Table 3. (Continued)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 (N=103)

특성	구분	N (%)	자아존중감			Dun-can	가족기능			Dun-can	자아효능감			Dun-can
			M±SD	F/t	p		M±SD	F/t	p		M±SD	F/t	p	
	만족한다	37 (36.0)	3.40±.28				2.41±.45		b		3.02±.30		b	
	보통이다	33 (32.0)	3.40±.39				2.36±.47		c		3.02±.15		b	
	그저 그렇다	20 (19.4)	3.47±.24				2.02±.44		c		2.85±.27		c	
	매우 불만족스럽다	2 (1.9)	3.15±.21				2.00±1.41		c		2.71±.13		c	
학습성적	상위권	18 (17.5)	3.59±.28	4.00	.021*	a	2.43±.37	.74	.476		2.86±.26	2.03	.136	
	중위권	68 (66.0)	3.36±.33			b	2.28±.47				2.92±.27			
	하위권	17 (16.5)	3.36±.18			b	2.36±.64				3.05±.40			

*p<.05. BMI=body mass index.

2.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1). 자아존중감은 평균 3.40 (±.31), 가족기능은 평균 2.32 (±.49), 자아효능감은 평균 2.93 (±.29)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Table 1).

3.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은 순상관관계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은 높았다($r=.383, p=.000$). 그러나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r=-.054, p=.558$), 자아효능감($r=-.024, p=.811$)과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은 다음과 같다(Table 3). 자아존중감은 성별($t=2.29, p=.024$)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고, BMI ($F=4.27, p=.007$)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BMI가 23-24.9 과체중인 경우가 18.5 이하 저체중, 18.6-22.9 정상인 경우와 25 이상 고도비만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수 ($t=4.18, p=.043$)는 4명 이상이 3명 이하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F=3.20, p=.016$)이 높을수록 학습성적($F=4.00, p=.021$)은 상위권이 중위권과 하위권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가족기능은 어머니의 교육수준($F=3.20, p=.016$)이 높을수록 간호학만족도($F=3.11, p=.018$)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았다.

자기효능감은 BMI ($F=7.35, p=.000$)가 18.5 이하 저체중, 23-24.9 과체중, 25 이상 고도비만인 경우가 18.6-22.9 정상보다 자아효능감이 더 높았고, 간호학 만족도($F=3.92, p=.005$)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중국 연변 Y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해 갖는 개인의 인지와 감정의 총체를 말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를 의미한다. 연구 대상자들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은 평균 3.40 (±.31)점으로 나타나 Lee (2006)는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자아존중감 평균 3.55점보다 다소 낮았다. 그리고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BMI의 경우 23-24.9 (과체중)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 가족 수는 4명 이상이 3명 이하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며,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자아존중감은 더 높았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고, 경제수준이 높고 부모와 동거하는 핵가족 형태의 대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Lee, 2006)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Kwon & Oh, 2004)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Park (2000)은 대학생 4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학습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Rosenberg (1985)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불안하고, 우울하며, 낮은 성취수준을 보였고, 그들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는 있으나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원했던 성공이나 더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반면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청소년들은 자기표현에 대한 능력, 자기확신, 인내, 잠재적인 지도력, 재주, 지능과 숙련도,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인 기술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기능은 Smilkstein (1984)의 family APGAR인 가족의 적응(adaptation), 협력(partnership), 성장(growth), 애정(affection), 용화(resolve)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지각한 가족기능은 평균 2.32 (\pm .49)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간호학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았다. 대학생들의 진로문제나 가치갈등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가족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다(Jang, 1998)는 보고와 Yang (2001)은 8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가족을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비혈연이라도 애정을 나누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학생들은 가족의 정서적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부모, 형제자매의 의사소통 등 상호작용이 원활해지게 되고 가족 간의 소속감과 신뢰감이 높아지게 되면 대학생들은 부모의 기대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Kim (2008)은 만성질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부담감이 적고 삶의 질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어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가족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가족 간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회의 가족기능(APGAR) 점수로 가족기능을 진단할 수는 없는데, 모든 가족은 문제가 더 심각할 때도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 만족도가 높을 때가 있기 때문에 가족기능은 어느 정도의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Cho et al., 2005)는 것을 감안할 수 있으며 가족기능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2.93 (\pm .29)점으로, BMI가 18.6-22.9 과체중인 경우와 간호학 만족도가 매우 만족한 경우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더 높았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인 동시에 신념이다(Bandura, 1977).

Park (2003)은 41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고 한 보고와 Chartrand, Camp와 McFadden (1992)은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적응의 예측변수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Zhang과 Richarde (1999)

는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혀냈고, Shin (2007)은 대학생 37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수준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Bandura (197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등 네 가지 정보원에 의해 발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여러 경험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데, 주로 반복된 과제관련 경험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목표를 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긍정적이며 사회적 문제해결 수행 능력이 높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는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는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과 순상관관계가 있다(Kwon & Oh, 2004; Lee, 2006)는 연구보고와 청소년의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적이 높다(Lee, Park, & Park, 2001)는 보고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연구 대상이 중국 연변 1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이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지역적으로 표본수가 작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수를 크게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변조선족 간호대학생의 경우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가족기능이 높고, 간호학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기능과 자아효능감이 높음을 볼 때 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BMI와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과의 관계는 선행연구가 없어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자신의 능력, 중요성 등 자신의 가치성을 평가,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인생의 전 단계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변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변 Y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며 연구 대상자는 2007년 8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편의 추출된 103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 Version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를 구하였고, t-test, ANOVA, 사후검정으로 Duncan's 검정,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평균 3.40 (±.31), 가족기능은 평균 2.32 (±.49), 자아효능감은 평균 2.93 (±.29)으로 중간값 이상이었다. 자아존중감은 성별, BMI, 가족 수, 학습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기능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 간호학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효능감은 BMI, 간호학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변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변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그리고 가족기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An, Y. H. (1988).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and made adolescents' mental heal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Bae, K. E., & Kim, E. H. (2007).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s, family function, ego-ident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3, 357-366.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hartrand, J. M., Camp, C. C., & McFadden, K. L. (1992). Predicting academic adjustment and career indecision: A comparison self-efficacy, interest congruence, and comparis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293-300.
- Cho, K. J., Song, J. H., Yoo, I. Y., Park, I. S., Park, E. S., Kim, M. W., et al. (2005). *Pediatric nursing I*. Seoul: Hyunmoonsa.
- Go, H. J., & Kang, H. W. (2000). Relationships of value orientation, self concept, carrer decision level, and campus life adjustment. *University Life Research*, 14, 69-95.
- Go, J. E. (1992). A study of correlations of family support, health behavior, and health statu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Dongnam Health College Collected Papers*, 9, 377-391.
- Hong, H. Y. (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of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ang, Y. M. (1998). Study for family function promo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4, 39-56.
- Kang, S. S. (199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ing student's family adaptability, family cohesion and person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Kim, H. Y. (2008). *The quality of life and burden by family function among caregiver with chronic pa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 Kwon, D. H., & Oh, Y. J. (2004). Family strength and self-esteem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 115-127.
- Lee, C. J. (1988). *The Koreans in China*. Seoul: Chunggye Institute.
- Lee, J. E., Park, S. N., & Park, H. R. (2001). The effect of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and family function of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7, 74-84.
- Lee, J. H. (2006). *A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self-esteem on the adaption in school life f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Lee, J. S. (1995). Comparisons on ego identity between Korean adolescents and those of Jilin Koreans. *The Research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Kon-Kuk University*, 5, 107-117.
- Lee, S. O.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family function and anxiety level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Oh, G. S. (1985). A study of social support and function of home: With mental retardation home. *Science of Nursing Collection*, 8, 27-53.
- Park, E. M. (2000). *Relationship of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between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types and student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J. S. (1987). *Self identity, adaptation and self actual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Park, S. Y. (2003). *Affection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dy (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pp. 205-246). Orlando, FL: Academic Press.
- Rosenberg, M. (1986). Self 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J. Suls and A.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3). Hillsdale, NJ: Erlbaum.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hin, H. D. (2007).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on stress coping styl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Shin, S. C., Lee, J. S., & Lee, H. Y. (1994). Comparisons on family function between Koreans and Koreans in the jilin province of China. *The New Medical Journal*, 37, 60-66.
- Smilkstein, G. (1984). The physician and family function assessment. *Family System Medicine*, 263-279.
- Yang, O. K. (2001).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60-67.
- Yoo, A. J., & Kim, H. S. (2005). *Human developmen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 Yoon, B. B., & Kwok, G. W. (1985). The study of family APGAR score as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family func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6, 13-17.
- Zhang, Z., & Richarde, R. S. (1999). Freshman academic achievemen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pril, 19-23.*